

# 이도현 “스위트홈으로 넷플릭스 첫 걸음…인기 실감해요”

배우 이도현(25)이 데뷔 3년만에 로맨스부터 스릴러까지 연기폭을 넓혔다.

tvN ‘호텔델루나’(2019), 율해 JTBC ‘18어게인’에 연이어 출연한 이도현은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웹드라마 ‘스위트홈’을 통해 전 세계인에 눈도장을 찍었다.

이도현은 23일 오전 진행된 넷플릭스 ‘스위트홈’ 출연 화상 인터뷰에서 “스위트홈”으로 다양한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한다”며 “스위트홈”에서 이은혁은 나도 처음 시도해보는 캐릭터와 장르여서, 다양한 연기를 잘 소화할 수 있는 배우라는 말을 들으면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스위트홈’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웹드라마로 은둔형 외톨이 고등학생 ‘차현수’(송강)가 가족을 잃고 이사 간 아파트에서 겪는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룬 스릴러물이다.

고립된 공간에서 인간이 괴물이 되어가는 비극적 상황과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심리 변화, 괴물과의 박진감 넘치는 사투가 극의 몰입감을 높인다.

인간과 괴물의 대결을 그리지만 단순하게 외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인간다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극 중 주민들을 이끄는 브레인이자 의대생 ‘이은혁’ 역을 연기한 이도현은 생존을 위해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리더를 연기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17년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어린

## 넷플릭스 ‘스위트홈’ 대박…화상 인터뷰

### ‘그린홈’ 주민 이끄는 의대생 ‘이수혁 역’

### ‘슬기로운 감빵생활’ 어린 이준호로 데뷔

이준호 역으로 데뷔한 이도현은 SBS TV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2018), JTBC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에서 조연으로 본격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tvN ‘호텔 델루나’의 ‘고명영’ 역과 JTBC ‘18 어게인’의 ‘홍대영/고우영’ 역으로 ‘차세대 로코 장인’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이도현은 ‘스위트홈’을 마치면서 연기 변신에 대한 재미에 빠졌다. “스위트홈”을 ‘18어게인’ 전에 촬영한 작품이었는데 확실히 변신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재미있었다”라며 “변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내가 변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조금 오래 쉬거나 길게 쉬는 시간을 가지면 늘어지는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 단계가 나에게 잘 맞아떨어져서 거 같다”고 말했다.

이도현이 도전하고 싶은 장르는 액션물이다. “해보고 싶은 장르는 제대로 된 액션 연기를 해보고 싶다”며 “노아르도 꼭 해보고 싶다.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연기, 극중 편상욱(이진욱) 같은 연기도 해보고 싶다”고 고

백했다.

‘K-크리처극’의 탄생을 알린 ‘스위트홈’은 현재 세계 안방극장을 장악하고 있다.

18일 공개 후 한국은 물론 태국,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총 8개국 넷플릭스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8위, 멕시코, 핀란드는 9위, 프랑스에서는 10위를 기록하며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작품은 ‘태양의 후예’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 등 연이어 흥행작을 연출한 이은복 PD와 넷플릭스의 만남으로 제작 확정 소식 직후부터 큰 화제작이 됐다.

이도현에게 “넷플릭스 작품을 한다는 거 자체가 영광”이었다.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된 것도 감개무량한데 좋은 반응이 있고 70개국에서 10위 안에 들었다고 해 대단하고 감사했다”는 이도현은 “친구들이나 부모 반응을 보고 (인기를) 많이 실감했다. 대부분 정주행했다”는 반응이 고마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양한 연기 도전은 이도현에게 이제 시작이다. “스위트홈”으로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첫



발걸음을 뒀다”며 “걸음마를 잘 뒀으니까 만약 시즌 2를 한다면 뛰어야 할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다.

드라마 차기작도 KBS 2TV 새 드라마 ‘오월의 청춘’으로 정해졌다. ‘오월의 청춘’은 내년 1월 방영될 휴먼 멜로드라마다. 이 작품에서 이도현은 주연을 꿰찼다.

이도현은 이 작품의 출연 계기에 대해 “내가 선택한게 아니라 감독이 날 뽑아줬다”며 “오월의 청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큰 이유는 광주 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이야기라보니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나라는 사람에게 제안이 온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잘 들여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다”며 “그래서 더 하고 싶었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새해 이도현이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영화다. “연기를 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도현은 “다양한 모습으로 시청자들과 관객을 만나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영화라는 새로운 도전해보고 싶다. 아직은 영화는 안 해봤다. 기회가 되면 영화 출연이 21년 새로운 목표”라고 했다.

## 백아연·슈퍼주니어·십센치, 잇단 겨울 시즌송 발표

### ‘춤지않게’·‘하얀 거짓말’·‘입김’

코로나19로 연말 가요계가 얼어붙었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잇따라 발매되는 겨울 시즌송이 온기를 더하고 있다.

23일 레이블SJ에 따르면, 슈퍼주니어는 이날 오후 6시 유튜브 슈퍼주니어 채널과 네이버 TV SMTOWN 채널에 ‘슈퍼주니어 10th 앨범 ‘더 르네상스(The Renaissance)’ #3 ‘하얀 거짓말(Tell Me Baby)’ 에니메이션 티드 필름’ 영상을 업로드한다.

슈퍼주니어가 내년 초 발매하는 정규 10집 ‘더 르네상스’에 수록되는 신곡 ‘하얀 거짓말’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톡톡한 기타 사운드를 더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자아낸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걸 말해주면 너의 산타가 돼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마음을 담은 경쾌한 곡이다.

‘하얀 거짓말 (Tell Me Baby)’ 프로모션

영상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멤버들이 ‘산타 견습생’이 돼 팬들에게 직접 선물을 배달하고 파티를 여는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냈다.

가수 권정열의 1인 밴드 ‘십센치(10cm)’는 이날 오후 6시 새 싱글 ‘5.1’을 발매한다.

매년 홀로 봄 시즌을 보내는 솔로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세상에 울려 퍼진 ‘봄이 좋나?’처럼 경쾌한 캐럴 속에서 이 겨울을 보내는 우울한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가 담긴 곡들이 실렸다.

타이틀곡 ‘입김’의 뮤직비디오에는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드는 배우 공명이 출연했다.

이번 앨범에 대해 권정열은 “모든 사랑이 내 것인 줄 알았지만 입김처럼 사라지거나, 혹은 오늘이 그저 어제가 되는 흘러가는 하루를 살았더라도 십센치의 음악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십센치는 이날 오후 KBS 라디오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입김’ 첫 라이브를 선보인다.

가수 백아연은 24일 오후 6시 새 디지털 싱글 ‘춤지않게’를 공개한다.

추운 겨울을 따스하게 감싸줄 백아연의 감성과 목소리를 최대한 살린 R&B 장르의 곡이다.

어쿠스틱 느낌에 신시사이저를 비롯한 여러 악기를 섞어 세련된 분위기로 완성했다.

한층 더 농익은 백아연표 겨울 발라드를 예고한다.

음원 발매에 앞서 이날 공개된 영상 속에는 눈 내리는 겨울밤을 배경으로 ‘춤지않게’의 가사와 멜로디 일부가 담겨있다. ‘춤지않게 난로 같은 니가 필요해, 나를 안아 주던 웃어주던 너는 어디로 가는 거니’ 등의 노랫말이 귀에 감긴다.

뉴스



## 도경완·조보아·이상엽, ‘KBS 연기대상’ MC

### 31일 오후 8시30분 KBS 2TV에서 방송

KBS는 도경완 아나운서, 배우 조보아, 이상엽을 ‘2020 KBS 연기대상’ MC로 낙점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보아는 지난 1월 방송된 수목극 ‘포레스트’에, 이상엽은 최고 시청률 37%를 기록한

주말극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 출연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31일 오후 8시30분 KBS 2TV에서 방송된다.

## ‘노는 언니’ 2021년 달력·굿즈 완판…추가 제작

### 29일 방송서 ‘달력 판매 전쟁’ 펼쳐질 예정

[E] 채널 예능 프로그램 ‘노는 언니’의 2021년 달력과 굿즈가 온라인 판매 5분 만에 다 팔렸다.

22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 ‘노는 언니’에서 2021년 달력 화보 촬영에 나선 언니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언니들이 시청자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이때 촬영으로 탄생한 달력, 손수건, 텀블러, 스티커로 구성된 ‘노는 언니’ 굿즈는 방송 직후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고 5분 만에 동났다.

이에 추가 문의글 쇄도로 ‘노는 언니’ 제작진은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굿즈는 시청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곧 추가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다”라고 23일 전했다.

29일 방송에서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지인들에게 달력을 판매하기 위한 언니들의 달력 전쟁을 펼쳐질 예정이다.

달력 판매왕 시상식에서 누가 판매왕을 차지할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 세븐틴, 올해 ‘홈런’…“K팝 새로운 정체성” 외신, 잇단 호평

### 더블 밀리언셀러로 등극

따오르는 그룹 ‘세븐틴’이 ‘2020년 최고의 K팝 노래’에 연달아 이름을 올리며 주요 외신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세븐틴은 올해 미니 7집 ‘행가래’, 스페셜 앨범 ‘: [세미콜론(Semicolon)]’을 각각 100만장 넘게 팔아치우며 더블 밀리언셀러로 등극했다.

23일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세븐틴은 최근 영국 매거진 테이즈드(DAZED)가 발표한 ‘2020년 최고의 K-pop 노래 40 곡(The 40 best K-pop songs of 2020)’에 ‘: [세미콜론]’의 타이틀곡 ‘홈런(HOME:RUN)’으로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미국 매거진 페이퍼(PAPER)도 ‘행가래’의 수록곡 ‘마이 마이(My My)’를 선정하며 ‘세븐틴은 최근 ‘레프트 & 라이트(Left & Right)’와 ‘홈런’으로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지키면서 소리를 향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또 “정식 발매 전 부드러운 미디엄 템포의 ‘마이 마이’를 선공개하며 훨씬 더 깊은 느낌을 줬다. 친숙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과 새로운 곳으로 향하려는 것 사이에서 평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그룹의 이중 감성을 완벽하게 표현했



다”고 극찬했다.

앞서 세븐틴은 미국 타임지 선정 ‘2020년 올해 한해 케이팝의 기념비적인 노래와 앨범들(The Songs and Albums That Defined K-Pop’s Monumental Year in 2020)’에도 ‘홈런(HOME:RUN)’으로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영향력을 과시했다.

미국 타임지는 기사를 통해 “브로드웨이는 2020년 대다수가 문을 닫았지만 세븐틴은 우

리에가 ‘홈런’으로 단 3분 만에 극장 음악을 가져다 준다”면서 “앞으로의 긴 여정을 위해 잠깐 쉬어가지는 앨범 주제에 맞게 ‘홈런’은 음악을 즐기도록 청자를 파티에 초대한다”고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세븐틴은 내년에도 글로벌 행보를 이어간다. 1월 초 방송되는 미국 CBS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쇼 위드 제임스 코든(제임스 코든쇼)’에 처음 출연한다.

## 조정석, 영화 ‘행복의 나라’ 주연

### ‘광해’ 감독 신작

배우 조정석이 영화 ‘행복의 나라’(가제)에 출연한다.

23일 배급사 NEW에 따르면 조정석은 ‘행복의 나라’ 출연을 확정했다.

‘행복의 나라’는 현대사를 뒤집은 사건 속에 휘말린 한 인물을 살리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변호사 이야기다.

조정석은 극 중 변호사 ‘정인후’ 역을 맡

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942만 관객을 사로잡은 영화 ‘엑시트’와 올해 큰 사랑을 받은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후 차기작으로 ‘행복의 나라’를 선택했다.

‘행복의 나라’는 ‘광해, 왕이 된 남자’ 등을 연출한 추창민 감독의 신작이다. 제작사 파파스필름과 오스카10스튜디오는 내년 여름 촬영을 목표로 본격적인 프리 프로덕션에 돌입한다.